

출 장 결 과 보 고

2008. 1. 21.

2008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자: 최정섭 원 장
최지현 기획조정실장

1. 출장개황

☐ 출장목적

- IATRC 세미나 참석
 - 오찬 연설: 한국의 농업정책(최정섭 원장)
- 2008년도 IATRC 서울 개최 관련 협력방안 협의
- 유관기관(미 농무부 경제연구소, 국제식품정책연구소)과 협력방안 협의

☐ 출 장 자

- 최정섭 원장, 최지현 기획조정실장

☐ 출장기간

- 2008. 1. 5(토) ~ 1. 11(금) (5박 7일)

☐ 출장지역

- 미국(워싱턴 DC)

☐ 출장일정 및 주요 면담자

일 시	체류 및 이동	주 요 일 정	주요면담자
1.5(토)	-인천공항 출발	◦ Dulles 공항 도착(09:20)	
1.6(일)	-워싱턴DC체류	◦ IATRC 오찬연설 준비 ◦ 주미 농무관 간담회	이양호 농무관, 정황근 국장
1.7(월) ~ 1.8(화)	"	◦ IATRC 세미나 참석 ◦ 1.7. 12:00 : <u>오찬연설</u> ◦ IATRC 2008서울세미나 협력방안 협의	Tom wahl(North Dakota State) Linda Young(Montana State) Ian Sheldon(Ohio State) Munisamy Gopi(Oregon State)
1.9(수)	"	◦ 관련기관 방문 및 협력방안 협의 -USDA/ERS(미농무부 경제연구소) -IFPRI(국제식품정책연구소)	Katherine Smith(ERS소장) Mary Bohman(ERS센터장) Paul Gibson(ERS센터장) Shenggen Fan(IFPRI센터장)
1.10(목) ~1.11(금)	- 미국 출국	◦ 인천공항(16:30)	

2. 주요출장결과

2.1. IATRC 연례회의

가. 일정

일시: 2008년 1월 7~9일(월~수)

장소: Willard Inter-Continental Hotel

나. 일반 사항

-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iatrcweb.org/>)에 게재될 예정이다.
- 학회 주제는 "세계경제에서 노동시장(Labor Markets in a Global Economy)"임.
- 출장자가 참석한 세션(session)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다. 주요 발표 내용

- 발표자: Philip Martin 교수(Univ. of California-Davis)
주제: Global Migration: An Overview of the Issues
- 주요 연구 결과나 동향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http://migration.ucdavis.edu>>
- 미국에서 농업취업자 비중은 2% 정도인데 이 가운데 외국출생 취업자는 75%에 달함.
 - 농업 취업자 가운데 불법인 경우는 20%에 달함.
 - 불법 농업 이동 취업자의 대부분은 멕시코인임.
 - 미국 전체로 보면 불법 취업자 수는 1,100만 명에 이름.
- 미국 취업비자인 H2A는 신청자의 98%가 승인되고 있음.

- 농업인은 쿼터가 없는 반면에 비자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자는 쿼터가 있으나 비자 받기 쉬운 형편임.

□ 발표자: Jeff Passel(Pew Hispanic Center)

주제: Immigration Trends and Patterns-US and Rural Patterns

- 2007년에 미국 내 외국태생 3,700만 명(Hispanic 1,700만 명) 가운데 불법인 경우는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함.

- 불법 인구 1,150만 명(2006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지역	불법 인구(%)
멕시코	57
라틴계	26
아시아	10
EU/캐나다	2
아프리카	5

- 불법 취업자 800만 명(2006년)의 취업분야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임시 및 계절 고용(연간 40만 명가량)은 포함하지 않음).

분야	불법 취업자(%)
농업	30
서비스	30
제조업	15
건설업	22
기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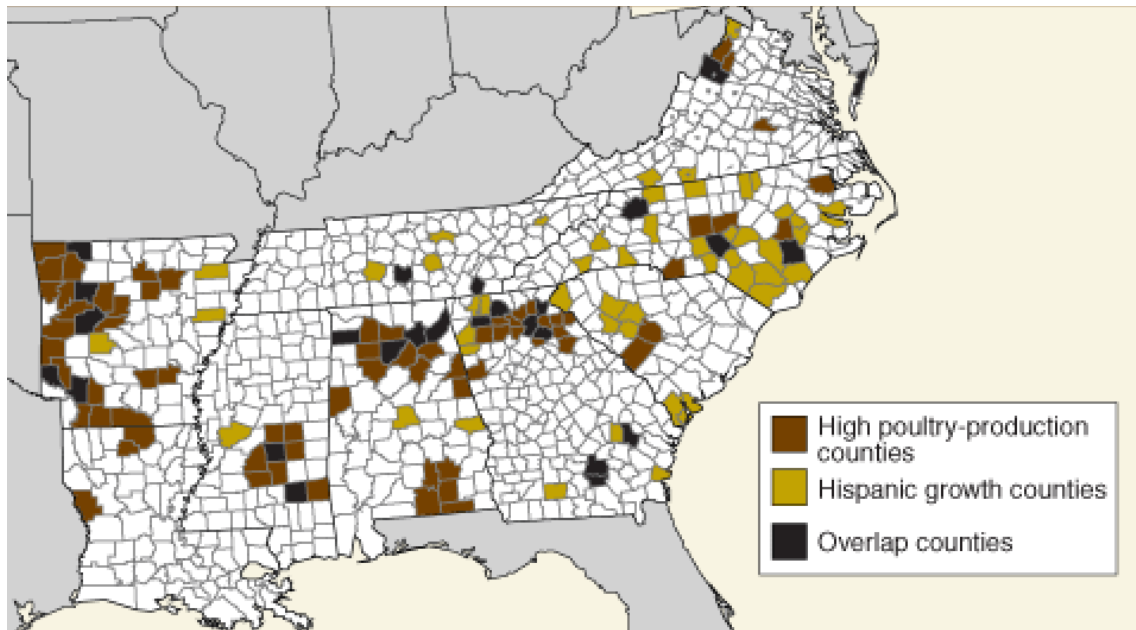
□ 발표자: William Kandel(USDA-ERS)

주제: 미국 육가공 업체에서 이주 노동력 현황

- 육가공 업체들이 농촌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가공육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중요한 노동 공급원이 됨.

- 젊은 인력의 이농 등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현실에서 교육이나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력 수요 위주의 육가공 업체는 히스패닉 노동자에 유리함.
- 도시 외(nonmetro) 지역의 히스패닉 10명 가운데 1명이 육가공 업체에 고용됨.

- 히스패닉 인구의 성장은 100개 이상의 농촌 카운티(county)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지역경제(소비, 부동산, 세금 등)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
- 미국 남동부 지역의 주요 닭고기 생산 카운티와 히스패닉 인구 증가 카운티의 비교(검은 표시가 생산지역과 히스패닉 인구 증가가 일치하는 지역임.)



□ 발표자: George Borjas 교수(Harvard Univ.)

주제: Immigration's Economic Impacts in the US

- 1980년에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은 Mariel 항구를 통해 자국민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건너가도록 허용하여 12만 5,000명이 미국에 넘어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Miami) 시의 노동자 수는 7%나 하룻밤 사이에 늘어남.
- David Card는 1991년 연구를 통해 히스패닉의 이민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흑인의 실업률 변화를 통해 살펴봄.
 - 분석 결과 이민 노동자의 폭증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 증가는 주로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님.
 - ① 이민 노동자들은 발전하는 지역(임금 상승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냄: 이에 따라 이민자 수와 임금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

- ② 원래 거주 노동자들이 이민 노동자들의 증가 지역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침.

마이애미 시와 다른 도시의 흑인 실업률 변화

지역	1979년(%)	1981년(%)
마이애미	8.3	9.6
기타	10.3	12.6

-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1960~2000년에 교육수준과 연령으로 구분한 노동자 그룹별 임금은 이민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그룹별 임금 탄성치는 -0.3 정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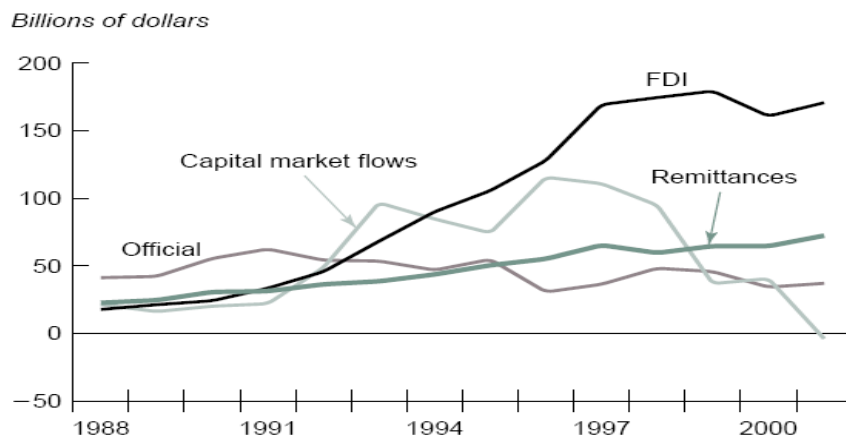
- 발표자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80-2000년의 이민이 고등학교 중퇴자의 임금을 8%, 대졸자 임금을 4%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냄.
 - 이민 노동자들의 증가는 전형적인 원래 거주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 3.3% 하락시킴.
 - 이민 노동자가 미국 GDP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0.2%임.

- 발표자: Raymond Robertson 교수(Macalester College)
주제: Trade and Migration: NAFTA and CAFTA

- 무역 증대와 투자 확대가 임금의 수렴을 가져오지 않음.
- NAFTA 전에 거주 노동력과 이민 노동력의 관계가 대체재였으나 NAFTA 후에는 이 둘의 관계가 보완적인 특성을 나타냄.
- 이민 노동자들에 의한 본국 송금액 증대는 최저 임금을 높여 결국 노동 비용을 상승시키며 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침.

- 발표자: Dilip Ratha (World Bank)
주제: Remittances and Development

- 개도국에서 외국 송금액은 아래 그림처럼 직접투자(FDI) 다음으로 중요한 자금원임.
 - 멕시코에 이민자의 본국 송금액이 GDP의 3%를 차지함.
 - 모로코에선 송금액 규모가 전체 여행업 수익보다 큼.



- 개도국에 중요한 자금원으로써 송금액은 빈곤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 발표자: David Orden 교수(Virginia Tech Univ., IFPRI Research Fellow)

Bruce Babcock 교수(Iowa State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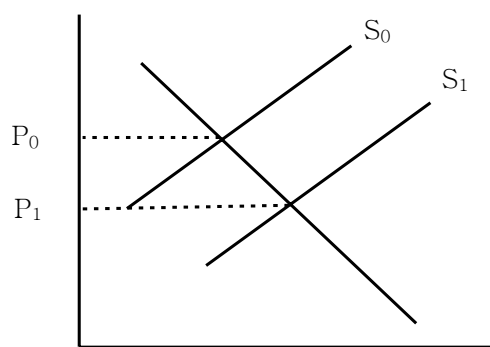
Sallie James 박사(Cato Institute)

주제: Farm Bill Implications for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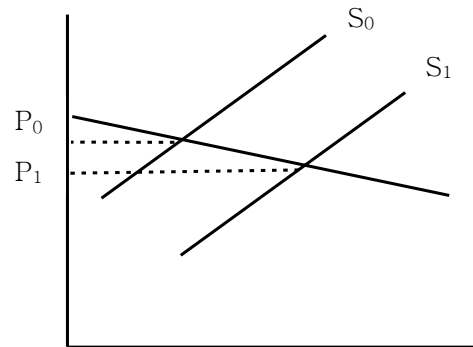
-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다수당인 상원·하원은 행정부가 제안한 개혁적인 내용을 채택하지 않고, 기존 2002년 농업법의 틀 안에서 작은 변화만을 담은 법안을 제시함.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경기변동 직불(CCP)을 수익보험제도(Revenue Insurance Program)로 전환하자는 행정부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일부 품목의 융자율(loop rates)과 목표가격(target prices)을 높였음.
 - 설탕 융자율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
 - 과일과 채소에 대한 간접 지원 방법으로 연방정부 영양제도 아래 구매 수준을 늘림.
 - 예산 적자는 비농업 조세를 늘리거나 조정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함.

- 상원(Senate)은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융자율과 CCP 대신에 평균 작물수익제도(Average Crop Revenue Program)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ACRP는 대상 곡물의 가격이 낮을 때 기존 제도와 비슷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나 가격이 높을 때에는 더 큰 이득을 줄 것으로 보임.
- 2008-12년에 농산물 보조규모(주로 직불)는 342억 달러로 추정됨.
 - 베이스라인에다 상원·하원 법안에 따라 조정한 결과임.
- 직불의 요건(기준 면적에 과실이나 채소 재배 금지)을 바꾸면 WTO 국내 보조 규범이 농정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 것임.
- 기름가격과 에탄올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곡물 공급을 늘리려고 보전 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에 속한 농지를 경지로 환원하면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압박요인이 될 것임.
- 에탄올 연료세 공제(credits)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원인임.
 - 갤런(gallon, 3.79리터) 당 0.51달러의 조세 감면은 옥수수를 에탄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서 1.5달러 이상의 효과를 나타냄.
 - 2007년까지 이런 보조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는 농업법에 속한 부분이 아니면 WTO 규범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음.
- 2007년 12월 19일에 발효된 2007년 에너지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은 2022년까지 360억 갤런(1,263억 리터)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가운데 옥수수 원료로 말미암은 에탄올은 150억 갤런(568억 리터)이 되도록 함.
 - 2005년 에너지법(Energy Policy Act)은 2012년까지 75억 갤런(284억 리터)의 대체연료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2007년 법은 이를 더욱 확대한 것임.
 - 2016년부터는 풀(switch grass), 나뭇조각(wood chips)처럼 셀룰로이스에 근거한 연료의 사용 비중을 높이도록 함.
 - 캘리포니아 주의 바이오연료 수요 규모는 10억 갤런(38억 리터)임.

- 곡물가격 상승으로 10년 또는 15년간 보전용으로 묶여 있는 CRP 농지의 생산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CRP 면적을 계약종료 이전에 농업활동 목적으로 전환하면 벌금이 부과됨.
 - 미국 정부는 CRP 농지가 공급 조절용이 아니라 환경 목적이라고 반대함.
- 옥수수가 농업 부문의 곡물에서 에너지 부문의 바이오 연료로 전환되면 수요함수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어서 공급 증가($S_0 \rightarrow S_1$)에도 가격 하락 폭($P_0 \rightarrow P_1$)은 크지 않음.



<곡물 부문 옥수수 수급>



<에너지 부문 옥수수 수급>

- 에탄올 보조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찬성: 농가소득 증대, 중동 의존에서 벗어난 에너지 안보 확충
 - 반대: 식품가격 상승, 환경 스트레스 증가(옥수수 생산증대에 따른 에너지 소요 증대), 에탄올 보조에 필요한 납세자 부담 증가
- 2004년에 에탄올용 옥수수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였으나 에너지법의 시행으로 그 비중이 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EU는 2010년과 2020년까지 운송용 연료의 각각 5.75%와 10%를 바이오 연료로 공급하기로 결정함.
 - 2005년에 바이오 연료의 비중은 1% 가량임.
- 비농업계의 목소리를 낸 James 박사는 미국의 보조정책이 무역을 왜곡하는 것이며, 의회가 제안한 농업법안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함.

- WTO 면화소송 사건의 판결대로라면 고정 직불도 감축대상보조(AMS)로 분류되어 미국의 보조규모는 WTO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됨.

□ 발표자: Gary Blumenthal 대표(World Perspectives, Inc.)
 Jason Hafemeister 부사장(Allen F. Johnson and Associates)
 Len Condon 회장(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Daniel Sumner 교수(Univ. of California, Davis)

주제: DDA 농업 협상

- 미국의 산업계 처지에서 2007년 7월에 제시된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에 대해 소개와 평가가 제시됨.
 -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에 대한 제안이 있으나, 회원국의 입장이 상의하여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함.
- 미국은 개도국 시장의 개방에 관심이 많으나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 의지는 약함.
 - 특히 인도는 농산물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tariff overhang)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관세 감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DDA로 말미암은 시장접근 개선은 미미할 것임(모델리티 초안의 감축 기준은 양허관세이기 때문임).
- 출장자는 방청석 발언을 통해 최근 협상 동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특별품목을 주장하는 G33 개도국 그룹은 자주 미국의 국내보조(농업법)를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조감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임.
 - G33은 특별품목에 관한 대우로 관세감축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둠.
 - 수입국 모임인 G10 그룹은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과 관세상한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평가하면서 관세상한 배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Hafemeister 부사장은 특별품목을 개도국 주장대로 인정하면 개도국 관련 대부분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이런 뜻에서 미국은 특별품목 수를 5개 관세라인으로 제안했다고 밝힘.

- 2008년에 DD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함.
 - 농업협상과 다른 협상들(서비스, 규범, 비농산물(NAMA))과 양허수준의 균형, 협상 진행정도 따위의 문제가 있음.
 - 모든 감축수준을 포함하는 모델리티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

라. 원장님 오찬 Speech

- 최정섭원장은 1월 7일(월) IATRC 오전 세션 이후 오찬연설을 함.
- 오찬연설 주요내용은 시장개방하의 한국 농업 현황과 당면과제, 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 KREI의 현황과 역할, IATRC 하계 심포지엄 추진상황 등이었음(첨부 자료 참조).
- 많은 IATRC 참석자들이 원장의 오찬연설에 대해 경의를 나타냈고, 특히 한국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마. IATRC 회의 시사점

- 많은 참석자들은 에탄올 관련 정책과 모형분석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EU의 에너지 정책과 목표 설정이 농업정책 그 자체보다도 관련 농산물 수급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함.
 - 에탄올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 측면의 관심(식량안보, 환경보전,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느낌.
- 미국의 2007년 농업법 제정 방향에 대해 학계와 비농업계는 아주 비판적인 반면에 농업계와 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방식 유지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음.
 - 이에 따라 새로운 농업법(제정 지연으로 2008년 농업법으로 불리게 될 것임)이 개혁적인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생각함.
- DDA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함.
 - 지금 협상 동향으로 볼 때 특히 산업계는 실익이 적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들 간 균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 IATRC는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EU, 캐나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학회이고, 무역과 국내정책 관련 새로운 의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용하므로 앞으로 원내 연구자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인적·학문적 교류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많은 IATRC 참석자들이 한국에서 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여름 심포지엄 (6월 말)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 행사 대비와 사전 한국 관련 정보 제공과 배포가 필요하다고 느낌.

2.2. USDA/ERS 방문

□ 현황

○ 설립목표

- ERS는 미국 농무성 산하 농업 정책 연구기관으로 총 800여명의 직원을 있으며, 식량, 식품, 농가, 자원, 농촌 발전 등과 관련된 경제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공공 또는 정책수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수행함.
- ERS의 우수한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농산물 및 식품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통계적 각종 지표를 개발

○ ERS의 5대 핵심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경쟁력 있는 농업시스템 (A competitive agricultural system)
- 2) 안전 식품의 공급 (safe food supply)
- 3) 국민의 건강과 충분한 영양 공급(A healthy, well-nourished population)
- 4) 농업과 환경의 조화(Harmony betwee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 5) 농촌 삶의 질 향상(An enhanced quality of life for rural Americans)

- ERS는 연구 결과와 각종 정보를 연구보고서, 시장 분석과 전망 보고서, 경제 브리프, 통계자료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함.
 - Amber Waves: 전체 ERS 업무를 요약발표하는 형태의 발간물
 - 홈페이지에서 모든 ERS 보고서들은 접근 가능
 - 강연, 세미나, 분석 자료, 연구자료 등은 정책 수립에 활용, 각종 학회의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

○ 연혁

- ERS은 공식적으로 1961년에 설립. ERS의 효시는 1905년 USDA의 식물 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에 농업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농업경영과(Office of Farm Management)임.
- 1905년 USDA은 경제 및 정책 분석을 위해 농업경영과를 신설. 이후 1919년 '농업경영 및 농가 경제과'로 개명함. 이 과의 주요 연구 분야는 농가 조직, 생산 비용, 농업 노동, 농업 자본, 토지 경제, 농업사, 농촌 복지 등에 관한 것이었음. 루즈벨트 대통령의 농촌 삶 위원회(Country Life Commission)은 USDA가 농업 경제 연구를 농가 가족 문제까지 확장하도록 건의함.
- 미국은 1922년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Henry C. Taylor를 첫 원장으로 하는 농업경제국(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BAE))을 신설함.
- 1923년 BAE은 농가에게 시장 정보와 연구결과를 잘 전달하기 위해 USDA 농업 전망대회(Outlook Conference)를 처음으로 개최함. 이 대회를 시초로 오늘날까지 매년 전망대회를 개최함.
- 1953년 USDA은 BAE의 경제 연구와 서비스 기능을 농업유통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기관과 농업연구 서비스(Agricultural Research Service)기관에 부여함.
- USDA는 1961년 모든 농업정책 연구를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ERS를 설립함. 1962년 ERS은 연구 영역을 농업 발전 정책, 농촌 활성화 정책, 수자원 및 환경 자원 정책 등까지 확장함.
- 1977년 ERS은 USDA의 통계과를 합병하여 ESCS(Economics, Statistics and Cooperatives Service)로 개명했다가 1981년 ERS로 개명함.
- 지난 60년 동안 ERS은 전문적 정책 연구와 경제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농민, 소비자, 정책가에게 새로운 기술과 국내 정책의 변화, 개방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 오늘날 ERS의 연구 영역은 변화하고 있는 식품과 농업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성, 영양, 자원, 환경 보전 등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함.

○ 조직

- ERS는 4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1) 식품경제센터, 2) 전산서비스 센터, 3) 시장 및 무역 경제센터, 4) 자원 및 농촌 경제

<식품경제센터(Food Economics Division)>

- 식품관련 정책에 대한 경제적 연구를 수행
- 국가의 식량원조와 영양 프로그램의 평가와 연구를 수행함. 이 센터는 식량 원조 및 영양 연구 프로그램(Food Assistance and Nutrition Research Program (FANRP))을 통해 기금을 지원함.
- 전문 연구 분야는 1) 식품소비(Food consumption), 2) 식품안전성(Food safety), 3) 식량원조(Food assistance), 4) 농가 식량안보(Household food security), 5) 건강(Diet and health), 6) 식품분야의 구조(Structure of the food sector), 7) 소매 식품 가격(Retail food prices) 등임.

<정보서비스 센터(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 정보서비스 센터는 정보 기술과 연구성과 교류 및 확산을 관리함. ERS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는 분석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 유지함. 주요 업무는 인터넷 관리, 전자자료 제공 등임.

<시장 및 무역 경제 센터(Market and Trade Economics Division)>

- 농업 시장과 무역의 구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세계 경제 및 정책 동향과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중장기 농업 시장 상황을 전망하기 위한 시장 지표를 개발하고 미국과 세계 농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경제, 정책, 제도적 영향을 평가함.
- 전문 연구 분야는 농가 위험 분석 및 관리, WTO의 농업 이슈 분석, 시장 구조, 가격, 무역 정책 평가, 지역 시장 통합의 경제적 평가, 농업의 산업화 집중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미국 농업과 연계된 세계 거시경제 평가, 농산물 가격 전망 방법론 개발 등임.

<자원 및 농촌 경제 센터(Resource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 자원관리와 환경 보전, 생산과 소비의 상호 관계, 기술 변화의 경제학, 농촌 발전, 농촌 경제의 구조, 농업 재정 평가 등을 연구함.
- 전문 연구 분야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세계 자원 연구, 농업 생산성 연구, 기술과 지속가능성, 무역과 환경, 생산 관행과 환경, 토지와 수자원 이용 및 관리, 농가구조, 농촌의 인구학적 변화, 농촌 노동, 농업 금융 및 재정 평가 등임.

- ERS의 식품 원조와 영양 연구 프로그램(The Food Assistance and Nutrition Research Program (FANRP))
 - FANRP는 식량 원조와 영양 프로그램의 경제적 연구 등에 연구비를 지원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식품 스탬프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그리고 학교 점심과 학교 아침 제공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이 포함됨.

□ 주요조사사항

- ERS의 연구자 평가시스템조사(첨부자료 참조)
 - ERS는 peer review pannel을 통해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함. ERS 직원 중 연구직과 지원부서는 분리해서 평가하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활용함.
 - peer review pannel 위원에는 외부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음.
 - 평가는 5년마다 한번씩 시행됨. 개별적으로 우수성과물 선택해서 패널에 제출하며, 평가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됨.
- 주요시사점
 - ERS도 우리 연구원과 같이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세부평가기준이나 peer review pannel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개인이 성과물을 직접 선택해서 패널에 평가용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발간물의 다양성
 - ERS는 3년전부터 최근 연구결과물을 “Amber Waves” 라는 책자에 요약본 형태로 발간하여 홍보에 전념하고 있었음. 우리 연구원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결과 요약물발간이 필요함으로 ERS의 다양한 형태의 인쇄홍보물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계획임.

2.3. IFPRI(국제식품정책연구소) 방문

□ 현황

○ 설립 목적

- IFPRI는 1975년 설립되었으며, 저소득 국가의 저소득계층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IFPRI는 저개발국가의 식량 및 식품 수요 정책을 분석하며, 주요 연구 내용은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 문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 농업환경 자원의 관리 등임. IFPRI의 연구결과는 저개발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응용되고 있음.

○ 비전과 임무

- IFPRI 비전은 세계 빈곤 퇴치와 영양 부족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임.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생산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고, 식량과 관련된 결정은 투명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 임무는 저소득 국가 저소득계층과 자원의 건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식량 안보와 영양 문제에 관한 지역, 국가, 세계적 정책을 밝히고 분석하는 것이 임무임.
- IFPRI은 저개발 국가의 수많은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연구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계층, 종교, 인종, 성별에 의해 차별받는 그룹에 연구 초점을 둠.
- 이러한 임무는 CGIAR의 목표인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등과 관련된 연구와 자원 관리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와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줄인다.”와 일치함. 건전하고 적절한 지역, 국가, 세계 공공 정책은 지속적인 식량 안보와 영양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수립에 연구 결과의 보급 및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IFPRI의 연구는 중요성을 지님.
- IFPRI는 국제 식량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식량 정책에 관한 저개발 국가의 제도와 인적 자본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함.

○ IFPRI는 CGIAR(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적 농업 연구 자문 그룹)가 지원하는 15개 식품과 환경 연구기관 중 하나

- 15개 기관들은 세계 곳곳에 위치해 있고, 자원 보호와 빈곤 퇴치, 그리고 식량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해 생산자, 연구자, 정책가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58개국, 연구 재단, CGIAR의 지역 조직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음.
- 지원국/기관: Australia, Belgium, Cana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rd Foundation, France, Germany, India, Italy, Japan, the Netherlands, Norway, the Philippines, Spai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Bank 등
- 기타 여러 국가 및 연구소: 특수 연구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 2020 Vision Initiative

- 세계의 식량 부족과 기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빈곤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지구의 환경파괴를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소는 "A 2020 Vision for Food,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를 추진하고 있음.

○ 예산과 인원

- 예산은 USD 30 million (2004년 기준)이며 세계 40여개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음.
- 직원은 약 280명 정도이며, Washington DC 외에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과학원에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6-7명이 주재함.

○ 조직

- 생산 및 환경자원, 무역 및 유통, 식품소비 및 영양, 발전전략 등 5개 연구센터로 구성됨.
- 독일, 인도, 중국, 이디오피아 등 세계 주요국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함.

□ 주요조사사항

○ 공동연구 모색

- IFPRI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등 농촌개발사업 수행 경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연구원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
- 특히 ADB, World Bank 등에 공동 proposal을 작성하여 제출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어 향후 농촌개발분야 연구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